

교무·학사·재무감사 통합 진행

도교육청, 감사 효율성 개선 위해... 내달부터 공사립유치원·초중 종합감사, 교육지원청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각 급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교무·학사감사와 재무감사를 오는 6월부터 종합감사로 통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감사 시각자대를 해소해 감사 효율성을 개선해 가기 위함이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 동안 교무·학사감사 대상 학교가 연 18~20 곳에 그쳐 정작 감사가 필요한 학교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교육청에게 위임된 공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이외 앞서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책무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무·학사분야 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6월부터 1개 직속 기관과 전라북도교육청연구개발공립 16곳, 사립고 20곳, 공립 특수학교 2곳 등 총 40개 기관(학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청에게 위임된 공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전라북도

교육·학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이 개정되는 7월 이후 시행된다. 이홍열 감사관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종합감사 도입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4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담당 과장 회의를 열어 종합감사 도입 취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교양 공동교육과정 운영 공동 협력 나서

우석대-청운대,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청운대학교(총장 정운)가 교양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청운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법중 우석대학교 교양대학장과 염은이 청운대학교 교양대학장을 비롯해 양교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간 교양교육 학점교류 △공동 교양교육 교과목 개발 및 교양교육 인프라 교류협력 △우수 교양 교과목 공유 △교양교육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 개발 등이다. 조법중 학장은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청운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양교의 교양교육 우수사례와 노하우 공유를 발판으로 앞으로 상호 발전적인 교양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의 프레드 정(Fred Jung, 사진 오른쪽) 시장이 1일 군산대학교를 방문하고 풀러턴시와 국립군산대학교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글로벌대학30 기반 글로벌 역량 강화

국립군산대, 미 풀러턴시장과 재학생 온라인 실습교육 등 협력방안 논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의 프레드 정(Fred Jung) 시장이 1일 군산대학교를 방문하고 풀러턴시와 국립군산대학교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이번 방문에는 풀러턴시의 고공립 정책보좌관, 오세진 경제보좌관, 박운재 문화예술고문 원은천 서울연락관이 동행했다. 풀러턴시는 유서 깊은 초중고등학교 등 아주 많은 국제학교가 있어, 미국 내 우수학교로 통하는 곳이다. 특히 CSU-풀러턴(캘리포니아 주립대 풀러턴)은 1957년 설립된 미국 서부의 대표적 주립대학이다. 캘리포니아의 23개 주립대 캠퍼스 중 가장 규모가 큰 종합대학으로, 100개 이상의 학사 및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레드 정 시장과 이장호 총장은

CSU-풀러턴을 비롯한 풀러턴 소재 대학들과의 글로벌 교육협력 네트워크 확충, 온/오프라인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 모델 및 글로벌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풀러턴시에는 한국 친화적인 기업이 많아 국립군산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 예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폭넓은 산학협력이 가능하다. 국립군산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고강도의 학사구조 개편을 했다. ICC(산업협업특화센터) 기반 대학부처 개편을 대폭 추진하며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했고, 글로벌대학30 사업추진 선포식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세계화의 중심에 앞장 설 것"을 선언했다. 특히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핵심

인재 풀러턴, 국제산학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작업을 꾸준히 해왔으며, 몽골국립교육대학 등 몽골 우수대학, 아프리카 주요 국가, 미국 푸에블로스시와 푸에블로 카뮤니티대학 등과의 미래형 국제교육활동 및 산학협력체계를 모색 및 구축해왔다. 풀러턴시와의 교류를 통해 국립군산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역량을 더욱 탄탄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풀러턴시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남동쪽으로 35km 떨어진 도시로, 인구 14만명 중 20%가량이 한인이다. 프레드 정 시장은 2020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풀러턴 시의원에 당선됐고, 2021년 12월 풀러턴 첫 한인시장에 됐으며, 2022년 연임에 성공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 원광대, 시민들에게 개방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교내 학생회관 2층에 자리한 IN+C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 '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원광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홍보와 광고 등 미디어 시장이 기존의 틀이 깨지면서 1인 미디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1인 미디어 시대 선도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IN+C 사업단 주관으로 크리에이터 창작소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시작한 IN+C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는 각 공간에 카메라와 조명 세트 등 촬영 및 편집 장비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학생지원관 3층 사업단 사무실에 방문하면 컴퓨터, 삼각대, 노트북, 마이크 등 촬영 장비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 신청은 링크30 사업단 홈페이지(https://linkrent.wku.ac.kr/main/) 대관관리시스템을 이용해 PC 또는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IN+C사업단장 조영삼 교수는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는 영상 제작과 촬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학생과 일반 시민 기업인 등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창작소 내부는 5개의 미디어룸과 크로마키룸, 조명 등이 갖춰져 있고, 특히 5대의 편집용 컴퓨터에는 모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가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교육아카데미, 올해부터 월 2회 전주 이외 지역까지

도교육청서 확대·운영... 12일부터 시작 총 15차례 걸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북교육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월 1회 운영하던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월 2회로 확대한다. 이에 5월부터 1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는 직장이나 맞벌이가정을 위해 교육 시간을 주중 저녁은 물론 주말 오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교육 장소도 전주 외에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시 지역으로 확대했다. 교육 분야는 미래교육·리더십·독서교육 등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자녀 지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내용들로 구성했다. 교육은 오는 12일 김진숙 박사(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의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

키우기'로 문을 연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및 도민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https://www.jbcga.org/parent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는 전북교육아카데미를 도내 시 지역까지 확대하고, 횡수도 월 2회로 늘렸다"면서 "전북교육아카데미가 학부모와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산어촌 학교 대상 '찾아가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

도교육청, 11월까지... 퀴즈·게임 등 접목·오감체험형으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월부터 11월까지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2022년)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이 흡연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연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찾아가는 흡연 예방·금연 교육'은

농산어촌 및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 4월 21~25일까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65곳, 중학교 45곳을 선정했다. 초·중·고·대학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게임·미술·쇼·인형극 등을 접목한 교육을 운영한다. 또 중학교에서는 레크리에이션·서바이벌 브레인 퀴즈 등을 연계

한 예방교육 활동이 이뤄진다. 이시기 문예제전과장은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흡연에 처음 노출되기 전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발달 시기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교육과 학생 참여형 흡연 예방·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가족·자연·별·영화'

'남원 대강중·섬진강영화제' 10일 개최

남원 대강중학교는 오는 10일 운동장에서 관내 교육 주체들을 대상으로 '대강중학교 - 섬진강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과 자연과 별과 영화'라는 주제 아래 한국영상자료원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르면 한국영상자료원의 '찾아가는 영화관'과 협업하여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가치봄)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장애인·비장애인인 함께 보는 영화로 자막과 해설이 곁들여진 영화를 뜻한다.

이날 상영작은 김진유 감독의 '나는 보리다. 나는 보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가족 사이에 유일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열한살 보리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소원을 빌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는 '장애'를 부족한 것 주류에서 배제된 것이라는 고착된 인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영화로 비장애인 보리가 가족과의 유대감을 갖기 위해 장애를 갖길 원한다는 이야기다.

섬진강 영화제는 영화감독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감독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설계하게 된 동기, 유년시절 감독이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느낀 감정들,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중심 내용(메시지),



다음 작품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진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나는 보리'는 제2회 독일 슈링켈국제영화제 관객상과 캄니츠 상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조합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성자 교장은 "농어촌학생들이 영화감독 및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의 진로를 설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배리어프리 영화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급성장 중 2차전지 산업 분야 인재양성 선제대응 나선다

전북대, 배터리융합공학 전공 신설 추진 '주목' 올해 지자체·산업체 요구 수렴 내년 개설 목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급성장하는 2차전지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융합공학 전공' 개설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최근 전라북도는 탄소·수소산업, 첨단바이오산업에 이어 K-방산 분야 선점을 위한 전략 육성사업으로 '배터리 분야 특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전공) 설립에 대학과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특히 (주)C화학과 같은 국내 굴지 대기업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키로 하는 등 약 2조 4천억 원의 투자협약 체결과 관련, 이번 전북대 배터리융합공학 교육과정 개설이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전북대는 대학 내외의 인력양성 요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 올해 개

설 준비를 거쳐 내년에 관련 전공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등 2차전지 관련 핵심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60명 내외의 융합전공으로 2024년 신설하고, 이후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신규학과 또는 전공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업체 인사가 교과목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체 현장실습도 진행한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협의해 계약학과로 추진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이 2차전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 지역에도 국내 굴지 기업의 인프라가 축적되는 만큼 관련 분야 전공 개설이 필수적"이라며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인력확보를 이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학교시설 개방으로부터 안전 보장"

지난 4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개방을 강요하기

보다는 무력 발생 시 제압이 가능한 학교보안관 확충, 학교보안관의 방문객 확인 강화를 통한 출입로 통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학교 입구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등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한 안전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학생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부지에 도서관이나 수영장, 공연장같은 시설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함께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은 지난 3월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넘어 일반교실과 특별교실까지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법규 정비에 따른 의견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며 "교육부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교실 개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계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실개방에 대한 내용은 제외된 상태"라며 "교육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도교육청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